



# Q&A

**Q1**

엄마가 결핵이 심해 폐가 많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약을 2년 가까이 먹고 있지만 낫지 않고 객혈이 나와 병원에선 보건소를 통해 결핵협회에 검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선 그 검사 결과가 나와야 어떻게 치료할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점점 몸 상태는 나빠지고 객혈은 심해지는데 어떤 손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개월 넘게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검사가 무엇인가요?

**A1**

현재 치료를 하시면서 약제 감수성 검사를 의뢰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제 내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약제 감수성 검사와 과거 치료력을 바탕으로 약을 선택 또는 변경하게 되는데, 보통 객담검사 의뢰 후 두 달이 지나야 배양검사 결과가 나오고 배양된 균에 대해 감수성 검사를 하는 데에 한 달 이상 걸려 총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Q2**

현재 약을 복용한지 3개월째 접어들었으며 몸무게는 55kg인 여성입니다. 약 복용한지 36일째부터 가슴이 마구 뛰고 하룻밤을 꼬박 샌 후로 불면증 및 시력 약화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결핵약 부작용인가요?

**A2**

아이나 복용 시 드물게 감정의 쉬운 변화, 흥분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탐부톨의 부작용으로 인한 시신경염과 그로 인한 시력 장애가 올 수

있으나 통상 용량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력 감퇴가 다른 원인이 아니라면 에탐부톨 투약을 중단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Q3** 결핵은 가지고 있는데 전염성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요? 할머니께서 엑스레이 이상 이상으로 균배양을 했는데, 그 결과 의사가 약을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십니다. 결핵은 약을 먹으면 2주 후에는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성이 없다며 약을 드시지 말라는데, 지금 아기가 있어 오히려 불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3** 내용으로 보서는 흉부 사진 상 결핵의 흔적은 있으나 현재 치료를 요하는 활동성 결핵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 선생님이 흉부사진과 객담검사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경우 전염은 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지시대로 하신다면 전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4** 폐결핵 10개월 약 먹고 완치판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목이 아프고 좀 피곤하며 턱 밑 쪽에 손으로 만져보니 동글동글한 게 만져집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갑상선에 아주 조그만 염증이 생겼더군요. 결핵성 임파선이 폐결핵 걸린 사람들과 연관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가능성이 있나요?

**A4** 결핵성 임파선염은 폐결핵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며, 임파선 세침검사나 조직 검사로 확진할 수 있습니다. 임파선염의 원인은 결핵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담당 선생님이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증상과 임파선의 크기나 양상에 따라 확진을 위한 검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